

사회



25일 오후 4시20분께 광주시 동구 총장로 한 건물 옥상에서 집단 폭행에 가담했던 김모(17)군 등 10여명이 구석에 쫓겨 앉아 있는 피해학생 손모(17·원안군)를 지켜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발로 짓이기고 때리며 웃기까지...

## 대낮 광주 도심 건물 옥상서 10대 10여명이 에워싸고 구타

### 경찰 출동 지연 폭행 계속돼

대낮 광주 구도심 건물 옥상에서 10대 10여명이 같은 또래의 학생 1명을 둘러싸고 구타해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학생들은 몸집이 왜소한 피해학생을 구석으로 몰아세운 뒤 차례로 장난치듯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며 30여 분 동안 폭행했다.

광주시 동구 총장로 한 소풍물 건물 옥상에 10여 명의 학생이 나타난 것은 이날 오후 4시20분께. 피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인 광주 모 중학교 3학년 손모(17)군을 다짜고짜 두들겨패기 시작했다.

구석에서 몸을 움츠리고 있는 손군

의 몸을 발로 짓이겼다 때로는 머리를 가볍게 툭툭 쳤다. 손군이 몸을 일으키려하자 뒤에 있던 다른 피해학생이 발로 차 다시 넘어뜨렸으며, 몇몇 학생들은 손군을 때리며 웃기까지 했다. 손군은 이들 학생들에게 반항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맞기만 했다.

이날 오후 5시께 인근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이들 중 광주 모 중학교 3학년 김모(17)군 등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 등 모두 7명을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일단 김군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함

께 손군을 구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경찰에서 손군은 "맞은 적이 없다"며 피해 사실을 부인했으며, 김군 등은 "손군과 합의 하에 1대1로 싸운 것이지 집단구타는 아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군 등 3~4명이 손군을 때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이를 구경하거나 여학생들의 경우 싸움을 말렸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라 손군을 구타한 학생을 가려내는데 조사를 집중하고 있다.

이날 현장을 목격한 박모(37)씨는 "시내 한복판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질 줄은 생각도 못했다"며 "갈수록 학교 폭력이 심각해지면서 각종 대책

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무용지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집단구타가 벌어지자 인근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으나 현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구대 소속 경찰 출동이 지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이 출동하자 피해학생 중 이미 상당수가 도망쳤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부 학생의 휴대전화로 학생들을 불러가까스로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또 다른 목격자인 정모(41)씨는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했다면 피해학생에 대한 구타가 좀 더 빨리 멈출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인건비·부식비 3억8000만원 꼴겨

## 전 복지관장 구속영장

### 전 관장 부인 등 4명 입건

광주 북부경찰은 25일 행정기관에서 지원된 보조금을 횡령한 광주 모 복지관 전 관장 이모(70)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복지관 전 부관장 A(45)씨, 전 총무과장 B(43)씨, 전 관장의 부인 C(여·64)씨, 전 부관장 부인 D(여·44)씨 등 4명을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 관장 이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1년 4월까지 광주시와 북구에서 지원한 인건비와 부식비 등 보조금 3억8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전 부관장 A씨, A씨의 부인 D씨는 같은 기간 이 전 관장의 지시 또는 공모로 친인척과 지인을 서류상 복지관 정규직원 및 기능강사로 허위 채용, 인건비를 횡령한 혐의다.

전 총무과장 B씨는 전 부관장이 맡겨놓은 도장을 이용, 직원들의 퇴직 적립금 3400여 만원을 임의로 인출, 도박 빚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다.

한편 지난해 4월 해당 복지관과 자치구의 위탁 재계약이 무산됨에 따라 이들은 각종 직책에서 물러났으며 현재 이 복지관은 다른 법인에서 위탁, 운영 중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주택 분양 보증 수수료 과세 취득세 내줄 필요없다"

### 중흥건설 '부당이득금 반환소' 1심 판결 뒤집고 광주시 승소

중흥건설과 중흥주택이 광주시를 상대로 주택분양보증수수료에 대한 취득세 부과가 잘못됐으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과 관련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방법원 제7민사 합의부(최인규 부장판사)는 25일 "광주시가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를 산정,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중흥건설 등에 반환토록 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광주시가 지난 2006년부터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산입해 취득세를 산정하도록 내부방침을 정하고

감사원과 조세심판원도 이러한 방침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며 "주택분양보증수수료가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는 판단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23일 중흥건설과 중흥주택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광주시 행정지도와 감사원·조세심판원 결정 사실,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과세한 취득세 중 38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광주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간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포함시켜 과세했으며, 지난해 보증수수료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자 과세를 중단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나원침 (8488) 김장두



## 친환경농산물 인증 위반업체 11곳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지난 5일부터 22일까지 광주·전남 지역 유통업체 등 285곳에 대해 친환경농산물 유통단계 일제조사를 실시해 위반 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농관원은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한 농산물에 인증표 표시한 유통업체 5곳과 생산자 6명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광주의 한 유통업자는 일반 계란을 사들인 후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스티커를 자체 제작해 계란에 부착, 일부 지역 마트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은 친환경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학교급식 및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해 사후관리 전담팀을 편성해 일제조사를 할 방침이다.

농관원의 한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ARS(1544-4321) 등을 통해 친환경인증농산물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농산물의 친환경인증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농관원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조선대 제2병원 광주 인근이나 도심 외곽이나

조선대병원 제2병원이 어느 곳에 세워질 지에 지역 의료계는 물론 주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선대병원은 지난해 초부터 제2병원 설립추진단을 구성해 타당성 검토 및 부지 물색에 들어갔다. 그러나 총장 선거 및 총장 사퇴 사태와 맞물리면서 하반기 동안 제2병원 설립 논의가 주춤하다가 올들어 본격화되고 있다.

조선대병원은 제2병원을 전남대 화순병원의 경우 같이 광주 인근 시·군에 설립하는 계획과 광주 도심 외곽지역에 설립하는 안을 놓고 구성원 의견 수렴 및 타당성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제2병원의 부지는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수도권 지역 병원의 경쟁에 대비, 환자 역의 유출

### 환자 역의 유출 방지 지역 선정 가능성 나주·담양·장성 등 지자체 유치전 치열

방지에 효과적인 지역을 선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 병원 설립 소식이 알려지면서 광주 인근의 나주시와 담양·장성군 등 지자체들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이들 지자체들은 제2병원 유치에 성공하면, 인구 유입효과와 함께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조선대병원은 광주 인근 지역 중에서 부지를 선택할 경우 고려, 지역별 병원 위치의 유·불리를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1971년 문을 연 조선대병원 이 제2병원을 설립할 경우 광주와 인근 시·군지역 의료계의 지각 변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대병원은 병원과 대학 구성원 대다수가 제2병원 설립에 찬성하는 만큼 빠르면 2015년, 늦어도 2016년까지는 새 병원을 완공하겠다는 입장은 확고하다. 다만 병원을 장성군으로 할 것인지, 광주 인근 시·군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는 만큼 보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선대병원은 최근 제2병원 건립과 관련한 병원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마쳤으며, 조만간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더욱이 제2병원 건립안이 총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옹호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던 만큼 부지 선정과 건립 방안 결정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조선대병원 관계자는 "현재의 시설로는 증개축을 해도 한계가 있어 제2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일단 2000~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병원을 짓기로 했으나 정확한 재원 규모, 설립 방식, 부지 등은 아직 미정이며 전 구성원의 의견을 종합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경찰, MBC 이상호 기자 체포

### 전두환 사저 앞 취재중

MBC 이상호(44) 기자가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집 앞에서 공부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 기자는 오전 11시30분께 고문 피해자를 인터뷰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의경 유모(22)씨와 실랑이를 벌였고 수갑이 채워진 채 연희지구대로 연행됐다.

이 기자는 한달전부터 고문피해자를 인터뷰하고 전 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MBC 팟캐스트 손바닥TV '화려한 인터뷰'를 진행해 왔다.

이 기자는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며 경찰이 팔을 꺾어 어깨와 허리에 타박상을 입었다고 주장해 인근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뒤 입원 수속을 밟았다. 의경 유씨도 이 기자에게 폭행당

했다며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뒤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이 기자는 연행 중 트위터에 '취재 중인 기자를 뺨수갑 채워 연행하는 나라' '미란다 원칙 고지하지 않았다' 등의 내용을 남겼고 한 블로그에 '전경 한명이 맨홀에 발을 빠트렸다고 폭행당했다 주장해 경찰에 체포됐다'고 밝혔다.

서대문경찰서는 "순찰차 탐승을 원강히 거부해 수갑을 채웠고 연희교차로 출소 도차 5분 뒤 수갑을 풀었다"며 이씨와 함께 체포된 조모(26)씨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선임권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상호 기자는 2005년 7월 안기부의 도청 내용을 담은 90여분짜리 테이프를 입수해 삼성그룹과 정치권 및 검찰 사이의 관계를 폭로해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연협뉴스

### 나이트서 즉석만남 여성 몸 더듬어

○...설 연휴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여성의 몸을 더듬은 20대 남성이 경찰서행.

○...25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강계주형 혐의로 붙잡힌 최모(25)씨는 지난 24일 오전 7시40분께 광주시 서구 지평동 모 모텔에서 술에 취한 A(여·26)씨의 몸을 더듬었다는 것.

○...최씨는 경찰에서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있다가 A씨가 취하자 쉬자며 모텔로 간 뒤 술기운에 몸을 더듬었다"며 선처를 호소.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예약접수 중** **선배 합격자가 말한다!** **개강: 2월1일**

**2012년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9급 공무원 시험 [국·공·민]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최고의 시설!**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합격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9급 종합반 법원서기보 7급 검찰직 소방직** **한빛고시학원** **농업직 9급 아간반 기술직 사회복지직 명품 '명품반'**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http://www.hanbitgosi.co.kr)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